

“일자리 채워라”... 고용부, 구직자-기업 ‘매칭’ 4배 확대

‘구직자·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확대 운영 구직자 24개소, 기업 35개소로 센터 늘려

고용노동부는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하는 ‘구직자·기업 도약보장 패키지’를 28일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구직자·기업 도약보장 패키지는 구인난을

겪는 기업과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진단-컨설팅-채용-취업에 이르기까지 종합 지원하는 서비스다. 지난해 8월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올해는 특히 기존에 6개소가 운영되던 구직자 대상 센터를 24개소로 늘리고, 기업 대상 센터는 9개소에서 35개소로 대폭 늘렸다. 모두 각 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담당한다. 고용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구직 활동 촉진이 중점을 두고 직무역량 개발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또 대학일자리센터와 직업훈련기관, 정신건강센터 등 기관과의 협업으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연계하고 청년이나 경력보유여성 등 대상별 특화 프로그램도 기획할 예정이다. 기업 대상으로는 지역별 빈 일자리를 매워 구인난 해소를 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최근 구인난이 계속되는 뿌리산업이나 조선, 운수·서비스업 등을 중점관리대상 업종으로

선정해 맞춤형 인재 매칭까지 패키지로 제공한다. 참여를 원하는 구직자나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초기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상담을 예약하면 된다.

최이슬기자

국내 휘발유·경유 판매가격 동반 하락

휘발유 1593.81원·경유 1523.45원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판매가격의 파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2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0(리터)당 1593.81원으로 집계됐다.

지난주인 3월 넷째주(19~23일) 평균 판매가격인 1596.4원보다 3원 가까이 하락했다. 최근 상승세를 보이던 휘발유가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다.

국제 휘발유 평균 가격은 2.9 달러(3771.74원) 내린 배럴당 90.5 달러(11만7704.30원)로 집계됐다.

이날 경유 평균 판매가격도 0당 1523.45원으로, 지난주인 평균 가격 1534.3원보다 10원 넘게 떨어졌다. 경유 판매가격은 최근 18주간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주 경유의 국제 가격은 전주 대비 3.1 달러(약 4031.86원) 떨어진 배럴당 98.9 달러(12만8629.34원)를 기록했다. 국제 유가는 주요국 중앙은행의 금리인상, 미국 상업원유 재고 증가, 미국 에너지부의 전략비축유 구입 연기 등의 영향으로 하락했다. 수입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지난주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3.9 달러(5066.88원) 내린 배럴당 73.7 달러(9만5854.22원)를 기록했다.

오유나기자

BMW, 준중형 SAV ‘뉴 X1’ 부분변경 출시...전기차 모델 포함

3세대 완전변경 모델, 동급 최고 수준 주행 기능



BMW코리아가 준중형 스포츠액티비티차량(SAV) 모델인 ‘뉴 X1’과 순수전기 SAV ‘뉴 iX1’을 27일부터 국내에 공식 출시한다.

BMW X1은 2009년 1세대 모델이 출시된 이후 현재까지 약 270만대 판매된 인기모델이다. 이번에 출시된 모델은 3세대 완전변경 모델로 세련된 외관과 실내 디자인, 동급 최고 수준의 주행 경험을 제공한다.

뉴X1과 뉴 iX1은 전면부에 ‘i’자 형태의

LED 주간 주행등과 일체형 키드니 그릴이 적용됐다. 후면부에는 날카롭게 꺾이는 디자인의 LED 리어라이트가 입체적으로 입혀져 현대적인 감각을 강조한다.

실내는 10.25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10.7인치 컨트롤 디스플레이가 조합된 BMW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설치됐다. 차체는 이전 모델 대비 길이 55mm, 폭은 15mm가 늘어났으며 높이도 15~25mm 높아져 넉넉한 탑승 공간과 적재공간

을 제공한다. 트렁크 적재 용량은 기본 490~5400에 2열 폴딩 시 최대 1495~16000로 넓어져 활용성을 높였다.

뉴 X1은 가솔린, 디젤 엔진 두가지로 국내에 출시된다. 가솔린 모델인 뉴 X1 sDrive20i에는 최고출력 204마력, 최대토크 30.6kg·m를 발휘하는 트윈파워 터보 4기통 가솔린 엔진이 탑재됐다.

디젤 모델인 뉴 X1 sDrive18d에는 BMW 트윈파워 터보 4기통 디젤 엔진이 적용돼 최고출력 150마력, 최대토크는 36.7kg·m를 발휘한다. 두 모델 모두 스텝트론이 7단 듀얼클러치 변속기가 적용됐다.

전기차 모델인 뉴 iX1은 앞뒤 차축에 각 1개의 모터가 장착돼 최고출력 313마력에 최대토크 50.4kg·m의 성능을 발휘한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5.6초 만에 가속하며 10%에서 80%까지 배터리를 충전하는데 29분이 소요된다.

BMW 뉴 X1·뉴 iX1은 xLine 및 M 스포츠 두 가지 트림으로 출시된다. 뉴 X1 sDrive20i xLine의 가격은 5870만원, 뉴 X1 sDrive20i M 스포츠의 가격은 6340만원이다. 뉴 X1 sDrive18d xLine과 M 스포츠의 가격은 각각 5770만원, 6240만원이다.

뉴 iX1 xDrive30 xLine의 가격은 6710만원, 뉴 iX1 xDrive30 M 스포츠는 6950만원이다.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지역에 따라 뉴 iX1은 최대 790만원 정도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

서선옥기자

쿠팡, 뷰티 제품 최대 70% 할인 행사



쿠팡은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와 봄 나들이 시즌을 맞아 뷰티 상품을 찾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인기 뷰티 브랜드를 대대적으로 할인하는 ‘뷰티나게 뷰티나게!’ 행사를 진행한다

27일 밝혔다. 달바·라운드랩·마녀공장·센카 등 인기 뷰티 브랜드 100여곳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다양한 색조 화장품부터 환절기 피부 보습을 위한 스킨케어·향수·네일 등 3000여개 제품을 최대

70% 할인한다. 특히 남성 뷰티 열풍을 반영해 남성용 제품을 포함한 베이스·립·아이 메이크업 상품을 모은 ‘메이크업 필수템’ 테마관, 할인폭이 가장 높은 베스트 상품을 묶은 ‘뷰티 필수템’, 일상에 향기를 더할 수 있는 ‘향수 필수템’과 ‘네일&툴 필수템’ 테마관으로 쇼핑의 편의를 높였다.

이날과 30일 이틀간은 스킨케어 제품을 단일가로 판매하는 ‘원 데이(1 Day) 특가’ 행사를 연다.

콜라겐이 풍부한 에이에이치씨(AHC) 콜라겐 크림, 간편하게 주름을 관리할 수 있는 은을 멀티밤, 약한 피부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마녀공장 비타 토너 등을 9900원에 만날 수 있다.

이슬비기자

전남농기원, ‘먹기 편한 강황젤리’ 선보여

전남도농업기술원이 진도 지역 특화작목인 강황의 소비 확대를 위해 간편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젤리 제품을 개발해 본격 사업화에 나섰다.

27일 전남농기원에 따르면 강황은 복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제약, 식품, 화장품 분야의 기능성 소재로 이용되고 있고 향신료인 ‘커큐민’을 3~4% 함유하고 있다.

향균·항산화 활성뿐 아니라 혈중콜레스테롤을 예방하고 면역 활성 증진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올금은 전국 생산량의 60%인 400t이 진도에서 생산되고 있다. 지난 2014년에는 ‘진도 올금’으로 제95호 지리적표시 등록을 통해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전남농기원이 개발한 ‘강황&유자 젤리’ 제품은 강황을 유자의 상큼한 맛과 블랜딩해 쓴맛을 줄이고 언제든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스틱 형태로 만들었다.

젤리에는 기능성 총 페놀성 화합물 함량이 100g당 22.57mg이며, 커큐민 함량은 1.7mg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농촌진흥청 소속 소비자 50명을 대



상으로 테스트한 결과, 90% 이상이 종합평가에서 ‘만족’하다고 답했다.

“강황을 간편하게 섭취하면서 건강까지 챙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전남농업기술원은 이번 제품 개발을 농촌진흥청과 2021년부터 2년간의 협업을 통해 추진했으며, 앞으로 도내 업체에 기술이전을 통해 사업화할 계획이다.

제품 개발자인 이우석 전남농기원 친환경농업연구소 연구사는 “앞으로도 다양한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과 기능성을 밝히려고, 이를 이용한 가공제품을 개발해 전남 특산물의 새로운 부가가치 증대로 농가 소득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기자

“흡입과 물걸레 청소 한번에”... ‘디봇 N10’ 시리즈 출시

로봇청소기 신제품 공개

로봇가전 브랜드 에코백스는 ‘디봇 N10’ 시리즈의 출시를 앞두고 쿠팡에서 사전 예약 판매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27일 밝혔다.

에코백스는 이번 사전 예약 판매를 통해 신제품 N10과 N10 플러스(PLUS)를 선보일 예정이다. N10은 흡입 청소와 물걸레 청소가 동시에 가능해 고객 편의성을 높인 로봇청소기다.

N10 PLUS는 N10에 먼지통 자동 비움 기능이 탑재된 오토 엠비 스테이션을 더한 제품이다.

예약 구매 신청은 28일부터 4월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사전 예약 고객은 에코백스의 신제품을 최대 10만원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구매 후 쿠팡에 포토리뷰를 작성한 고객에 한해 대화용 물걸레 1세트 또는 향균 먼지 봉투 1세트가 제공된다.

뉴시스



규제 완화에 ‘상위 50위’ 아파트값 하락 폭 너 달째 줄어

KB부동산 선도아파트 50지수 -0.45%

정부의 전방위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로 가격 변동에 민감한 시가총액 상위 50위권 아파트값 하락 폭이 너 달째 줄었다.

27일 KB부동산 3월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달 선도아파트 50지수는 전월 대비 0.45% 하락한 88.9를 기록했다.

선도아파트 50지수는 지난해 11월 3.14% 떨어지며 KB부동산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대 하락 폭을 보였다.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규제 완화가 본격화되면서 올해 3월까지 지난 달 연속 낙폭을 줄였다.

선도아파트 50지수는 전국 아파트단지 중에서 시가총액(세대수 X 가격) 상위 50개 단지를 매년 선정해 시가총액의 지수와 변동률을 나타낸 것이다.

이 지수에는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는

미아파트, 잠실주공5단지를 비롯해 압구정현대, 도곡동 타워팰리스,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마포 래미안푸르지오 등이 포함돼 있다. 전체 단지보다 가격변동 영향을 가장 민감하게 보여주는 때문에 전체 시장을 축소해 미리 살펴보는 의미가 있다.

부동산 규제 완화에 시종은행 대출금리 인하 등으로 서울 전체 아파트값도 하락 폭이 줄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2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5% 떨어지며 하락 폭이 6주 연속 감소했다.

특히, 서초구와 강동구는 재건축 단지나 정주 여건이 좋은 주요 대단지가 소폭 상승하면서 보합(0.00%)으로 전환됐다.

강남의 주요 재건축 단지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전용면적 106.26㎡는 지

난 13일 45억5000만원(3층)에 증가 거래됐다. 올해 1월 같은 면적이 43억원(2층)에 거래됐는데 두 달 만에 2억5000만원 상승했다. 강동구 고덕동 ‘고덕그라시움’ 전용 59㎡도 지난 6월 12억9000만원(10층)에 손 바뀐됐다. 올해 1월 같은 면적이 9~10억원대에 거래됐던 것에 비하면 큰 폭으로 올랐다.

한편 당분간 규제 완화 정책으로 거래량은 다소 늘어날 수 있지만 해소되지 못한 급매물들이 여전히 쌓여있어 아파트값 하락세를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지혜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지난해 말부터 속도감 있게 이어지는 정책 효과들에 힘입어 거래량은 점차 정상계도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서도 “여전히 절대적인 거래량이 부족하고, 해소되지 못한 급매물들도 시장에 쌓여 있는 만큼 하락 관점이 더 유효해 보인다”고 밝혔다.

김재환기자